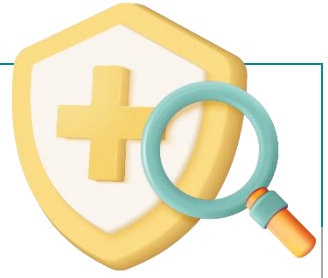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10월 초)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5년 10월 01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10월 제약사 실적 발표 시즌, 연이은 바이오텍 화재 속 여전히 유효한 기대감

1) 10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 3분기 제약사 실적발표 시즌.** 올해 제약사들의 3Q25 실적은 모두 추석 연휴 주간이 끝나는 10월13일부터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월초에 프리뷰를 진행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한미약품 등도 일정을 미뤘다. 컨센서스 상 전분기 대비 3Q25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HK이노엔, JW중외제약, 대원제약, 바이넥스 등(한미약품 당사 3Q25F로 포함됨)이 있다. 올해 한 해 동안 제약사는 바이오텍에 비해 금리인하 수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하반기 실적발표로 접어들면서 2026F 실적 컨센서스가 크게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3Q25에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내년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사를 거래하기 좋은 시점이라 판단된다.
-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다.** 9월에는 키트루다SC의 FDA 승인 획득, Pfizer의 Metsera 인수, 지루지바이오의 유럽 제약사와의 제형화 공동개발계약 등 기대했던 대형 이벤트가 다수 현실화 되었다. 다만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 했으므로 이벤트 현실화 후 셀온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이벤트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털이 상승할 수 있겠으나, 추석 연휴가 지나면 10월의 짧은 거래일 후 한 해가 끝난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L/O 기대감이 남아 있으면서 직전 L/O 이벤트 발생시의 주가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주가가 낮아진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듯 하다. 예를 들어, 알테오젠은 올해 3월 AZ에 L/O했을 때의 수준만큼, 리가캠바이오도 작년 10월 오노약품에 L/O했을 때의 수준만큼 주가가 낮아져 있다.
- 학회와 미국 정책 변수 이어질 것 (관세, 약가 인하).** 10월17일 ESMO(유럽종양학회: 리가캠바이오, 보로노이, 지아이 이노베이션 등 참가), 11월3일 World ADC(세계ADC학회), 12월6일 ASH(미국혈액학회) 등 주요 종양 학회가 매월 이어질 전망이다. LBA 선정, e포스터 제출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학회 개최 2~3주 전부터 기사 등을 통해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아울러 미국 정책 변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올 한 해 내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관세 100% 협박과 약가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우리는 관세 15%, 약가 인하 영향 없음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확실할 수는 없으므로,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의 주가는 이러한 불확실성 이벤트에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10월 추천 종목

- 10월 제약사 Top pick: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약기간 4.5년으로 1.8조원(다라투무맙 추정) 수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주가는 제자리이다. 분할을 앞두고 거래를 미루는 분위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시 주주총회일인 10월17일경부터 거래가 정지되는 10월30일 전 매수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미약품은 미국 정책 변수에 대한 영향이 적으면서, 하반기 R&D 이벤트가 많다. HM17321(근육증가)와 HM101460(저분자화합물 경구)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작은 규모지만 길리어드에 Encequidar L/O하는 성과도 보였다. 12월에 에페글레나타이드 (비만치료제)의 3상 탑라인 발표, MSD에 기술이전 된 Epinopegdutide의 임상 관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다.
- 10월 바이오텍 Top pick: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두 회사 모두 하반기 예정된 L/O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직전 L/O 수준만큼 낮아져 있다. 1) 알테오젠은 키트루다SC의 FDA 승인 획득으로 추가 L/O 유인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 올해 한 건 이상의 L/O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내년은 더 많은 수의 L/O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2) 리가캠바이오도 파트너사의 항암 학회에서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매년 1건 이상의 L/O를 해 왔으므로 올해도 신규 L/O가 나와주기를 기다려 보면 좋을 듯 하다.

지난 달(9월) 하나 제약/바이오 리포트

[Biweekly] 9월 종양 학회 본격 시작, 비만치료제 테마 속 종목 선별 (9/2)

- 9월부터 주요 종양 학회가 매월 개최되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데이터 공개 및 파트너십 확보에 집중할 전망
- 의약품 관세, 약가 인하 등 미국 수출 비중 큰 국내 제약사들은 미국 정책 변수로 인해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
- 장기지속형 주사 비만치료제 종목 포함 비만치료제 대한 관심 지속될 것
- 투자아이디어 ①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다수 보유하며 미국 정책 영향이 적은 한미약품. ②하반기 종양 학회 앞두고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 예정인 리가캠바이오 ③ Metsera의 경구 비만치료제 임상1상 진입 기대감이 있는 디앤디파마텍

➤ URL: <https://buly.kr/8pgwaHZ>

[기업분석] 셀비온 (308430): 플루빅토 보다 여전히 높은 효능과 낮은 부작용 확인 (9/5)

- Lu-Pocuvotide의 2상 결과 발표. ORR 35.9%로 중간 결과보다 낮지만 여전히 Pluvicto 대비 우수한 효과
- RECIST v1.1기준 ORR과 부작용에서 모두 우수한 효과 보여주었기에, 올해 4분기 CSR 수령 후 조건부허가 승인 기대

➤ URL: <https://buly.kr/7x79gl5>

[산업분석] EASD 2025에서 찾는 비만치료제 개발 동향 (9/16)

- EASD 2025에서는 체중 감소 효과와 부작용 관리를 위해 아말린 유사체 병용 투여가 주목받고 있음
- Metsera도 아말린 유사체 MET-233i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MET-097와 병용, 월 1회 초장기 약물로 개발할 가능성 높음
- Roche의 CT-388, petrelintide나 TERN5의 TERN-601의 임상 1상 데이터 발표

➤ URL: <https://buly.kr/4Qo0465>

[Biweekly] 금리 인하에 따른 제약/바이오 관심도 증폭 (9/16)

- 아스트라제네카의 FLAURA2 결과 발표 후 아미반타맵+레이저티닙 병용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유한양행의 주가 상승
- 10~12월 ESMO, World ADC, ASH 등 주요 종양 학회가 이어지며, 학회 2~3주 전 기사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미국 약가 인하 압박과 생물보안법 논의 등 정책 변수로 국내 제약사 주가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
- 투자아이디어 ①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다수 보유(9월 내 에페글레나타이드 3상 종료 예정)하며 미국 정책 영향이 적은 한미약품. ②종양 학회들을 앞두고 매월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 예정인 리가캠바이오 ③ Metsera의 경구 비만치료제 임상1상 진입 기대감이 있는 디앤디파마텍

➤ URL: <https://buly.kr/EoohwKS>

[기업분석] 디앤디파마텍 (347850): MASH는 끝까지 봐야 하고, 비만치료제도 있다 (9/19)

- DD01의 24주차 섬유화 관련 바이오마커 데이터 공개. F2~F3 단계 환자군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 확인
- 11월 AASLD 학회에서 자세한 데이터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48주 Top line 발표는 1H26에 발표 예상
- 하반기, 경구 비만치료제 개발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URL: <https://buly.kr/3COhCcS>

[기업분석] 알테오젠 (196170): FDA 승인과 CHMP 승인 권고, 연내 미국/유럽 진입 (9/22)

- 9월 19일 키트루다 SC의 FDA 승인과, CHMP 승인 권고 획득하며 2026년부터 미국, 유럽 시장 동시 진입
- 키트루다SC 승인으로 신규 파트너사 유입 증가 예상되며 신규 기술이전 또한 기대
- 자체 공장 설립을 통해 2028년부터 제품 생산을 본격화, ALT-B4 신규 L/O 감소 시기에도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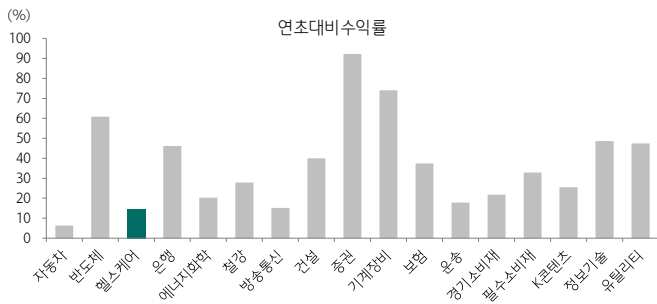
➤ URL: <https://buly.kr/6Xn5qBf>

[기업분석] 디앤디파마텍 (347850): Pfizer의 Metsera 인수, 경구제는 대세 (9/23)

- Pfizer가 Metsera를 최대 약 10조원 규모에 인수하며,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및 아말린 유사체 등 포트폴리오 강화
- Metsera의 경구제 파이프라인에는 디앤디파마텍의 ORALINK 기술이 적용돼 Pfizer 인수 후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
- 핵심 파이프라인은 MET-097·MET-233(경구제 포함)으로, 디앤디파마텍의 ORALINK 플랫폼이 적용된 경구제의 가치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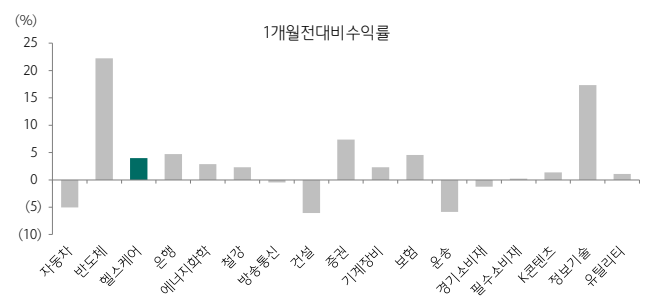
➤ URL: <https://buly.kr/8pgwauM>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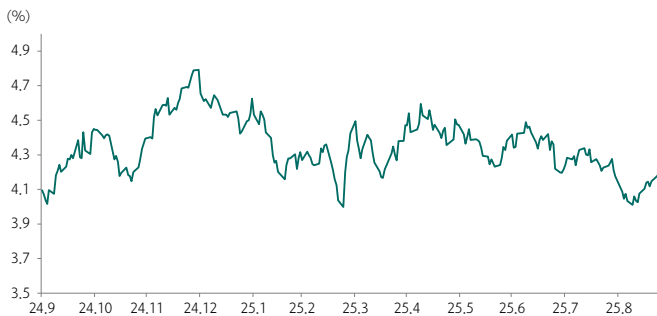
주: 9/30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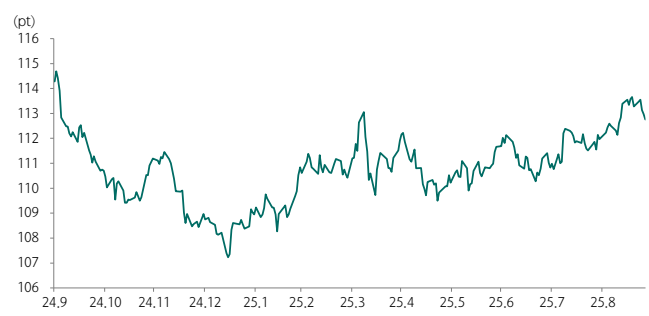
주: 9/30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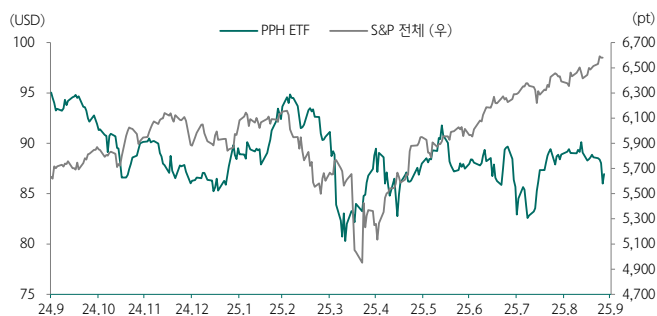
주: 9/30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



주: 9/30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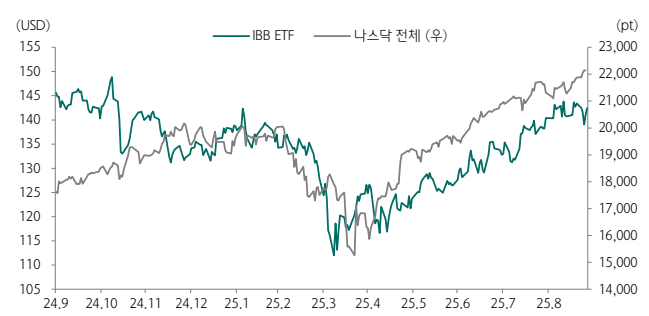
도표 5.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주: 9/30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7.30%), Johnson & Johnson(11.53%), Novartis(7.90%),
 MSD(6.16%), Novo Nordisk(6.13%), Abbvie(5.04%), AstraZeneca(4.97%), Pfizer(4.64%),
 Sanofi(4.57%), McKesson(4.3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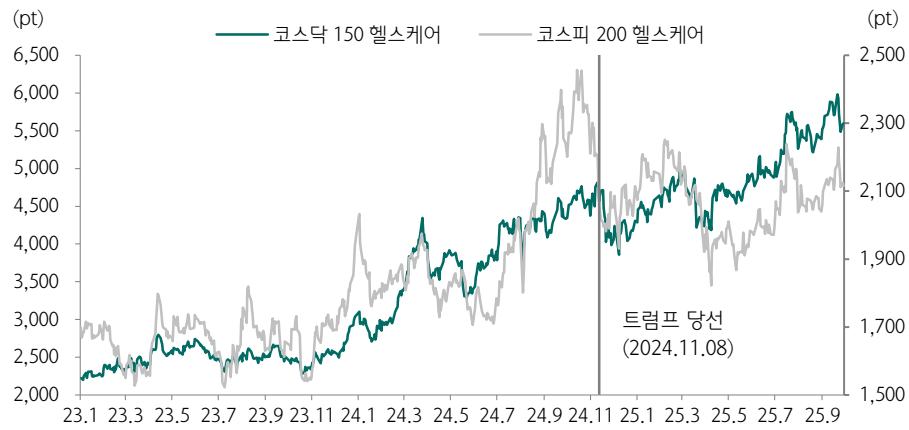
도표 6.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주: 9/30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Gilead(7.29%), Amgen(7.09%), Regeneron(6.56%),
 Vertex(6.28%), Alnylam(6.04%), IQVIA(3.55%), Insmed(3.05%), argenx SE ADR(2.98%),
 Mettler-Toledo(2.92%), , Natera(2.36%)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5. 트럼프 당선 전후 코스닥과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



주: 9/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verse, 하나증권

10월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일 9/16 이후)

[9/18] Roche(SWX: ROG), MASH 치료제 개발사 89bio 인수

- 89bio의 인수 가격은 최대 35억 달러(약 4.8조원). 89bio 주식을 14.50\$/주에 현금으로 매입하고, 상업화 및 매출 달성 조건에 따라 주당 최대 6.00달러의 조건부가치권(CVR)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 89bio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FGF21 유사체인 '페고자페민(pegozafermin)'으로 중등도에서 중증 단계의 MASH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단독 또는 Roche가 이미 보유한 CT-388, CT-996 등과 병용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Roche는 올해 인크레틴 계열 치료제를 이용한 대사질환 파이프라인 구축에 매우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2025년 3월에는 Amylin 유사체 비만치료제인 Petrelintide를 Zealand pharma로부터 L/I 하여 단독 및 병용으로 개발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9월24일에 열린 R&D day에서도 체중 감량 시장에서 Top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GLP-1/GIP 수용체 작용제인 CT-388의 1H26 임상3상 진입 및 30년까지 출시할 계획/ 26년 petrelintide, CT-388, CT-996 임상2상 발표 예정 등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였다.

[9/19] 알테오젠(196170), 키트루다SC의 유럽 CHMP 승인 권고 획득 및 FDA 승인 획득

- 키트루다SC가 FDA 승인 획득과 유럽 CHMP 승인 권고를 획득하였다. 유럽도 연내에 최종 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르면 미국 출시에 따라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부터 글로벌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로열티 수령이 가능하다. 알테오젠은 9월29일 한국투자증권에 코스피 이전 상장 주판사로 선정하면서 내년에 코스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 FDA 승인으로 곧 추가 L/O 계약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키트루다SC는 제품명 "키트루다 큐렉스(KEYTRUDA QLEX)"로 판매될 예정이다. MSD는 10월 출시계획을 내비친 바 있으나 출시일은 불명확하다. PGR에서 Halozy me이 보정 없이 반박만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아직 합의나 이른 소송 종료를 기대할 만한 분위기는 아닌 듯 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PGR 결과와 Halozyme의 특허 무효 또는 ALT-B4의 실시예 관해 문제 없는 권리 범위 수준으로 축소 보정되는 것으로 종료될 것이라 예상된다.

[9/22] 디앤디파마텍(347850), Pfizer의 Metsera 인수로 경구화 플랫폼 기술 주목

- 인수 조건은 Metsera 47.50\$/주에 현금으로 매입하고, CVR(조건부가치권)으로 최대 22.5\$/주를 추가로 지불하는 조건(MET-097i, MET-233i 관련)이다. Pfizer가 CVR로 세세운 조건은 모두 월1회 투여의 임상3상, FDA 승인과 관련된 조건으로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 해당 이벤트 후 당일 디앤디파마텍의 주가는 CVR에 디앤디파마텍 기술이 적용된 경구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망한 듯 보였다. 그러나 당초의 현금 인수 가격에 경구제 또한 포함된 것이고, Pfizer도 인수 계약 후 웨비나에서 경구제 파이프라인의 우수한 성질을 언급하는 등 관심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이후 9월29일 Metsera가 MET-097o의 임상1상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여 시장의 불안을 다소 잠재운 상태이다. MET-097o의 임상1상 4주차 투약 결과가 12월 말 경 Top line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9/22] 바이넥스(053030), 557억 규모 오송 공장 증설 공시

- 이번 오송 공장 증설은 투자금액이 공시 대상이 되면서 공시된 것이므로 시장에서 새로운 CAPEX 투자로 인식하지 않아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설되는 공장에 들어갈 반응기는 5,000L 2개로 이미 가동할 수요를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임. 최근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규모는 5,000L 수준으로, 신규 수주를 위해 CAPEX 투자가 필요해진 상태이다. 즉, 시장이 알고 있지 않던 새로운 공장 증설 소식을 빠른 시일 내(1H26 예상)에 또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23] 셀트리온(068270), 릴리 자회사의 미국 공장 인수로 관세 리스크 절감

- 미국 현지에서 가동 중인 cGMP 시설을 4,600억원에 인수하였다. 해당 공장은 릴리의 자회사인 ImClone System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이번 인수로 릴리와 CMO 계약을 병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셀트리온의 BS를 생산하면서 해당 공장에서도 생산하던 주요 의약품들을 인수 후에도 위탁 생산하면서 CMO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 셀트리온은 인수 후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하여 증설과 설비 업그레이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향후 발생 가능한 관세 리스크에서 일부분 자유로워졌다. 판매 중인 모든 BS를 인수한 공장에서 생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BS를 생산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더 추구할 수 있을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나, 미국 CMO를 확보 했으니 관세를 수준에 따라 생산 사이트의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노리는 방향으로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9/26] Eli Lilly(NYSE: LLY), 근육증가제 Bimagrumab 개발은 비만에만 집중하기로 결정

- T2D 환자 대상으로 진행하던 근육증가제 Bimagrumab의 임상2b상을 철회하였다. 다만 Tirzepatide와의 병용 투여로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임상2상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밝혀 전략적 비즈니스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회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 Bimagrumab은 Activin type 2 수용체에 결합하는 항체로 비만치료제 중 한미약품의 근육증가제인 HM17321과 비교된다. HM17321은 펩타이드이므로 기존의 펩타이드 치료제와 혼합하여 SC로 투여하기 쉬운 장점을 갖는다. Lilly의 이번 결정으로 비만치료제 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기술이전을 위한 포지션 구축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9/29] 지투지바이오(456160), 공동개발계약 체결 및 한미약품(128940) 길리어드에 경구제 플랫폼 기술이전

- 지투지바이오가 유럽 소재 글로벌제약사에 InnoLAMP 플랫폼을 활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관련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약 10개월 간 전임상 약동학/약력학(PK/PD) 평가에 적합한 프로토타입 제형 개발과 평가 종료 후 6개월 내 옵션 발효로 기술이전 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계약기간: 2025.09.29~평가종료+6개월로 약 16개월). 계약 대상과 금액이 비공개이나,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는 손에 꼽는다.
- 한미약품도 같은 날 길리어드에 경구제 플랫폼인 Encequidar를 기술이전 하였다. 총 계약 규모가 448억원으로 다소 작은데, 이는 Encequidar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물론 Athenex처럼 병용으로 신규 IP 창출이 가능하다. 다만 시장은 한미약품에 비만치료제의 L/O 또는 MASH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남은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9/29] 일동제약(249420), 경구제 비만치료제 임상1상 공개

- 저분자화합물 경구용 비만치료제인 ID110521156의 임상1상 Top line이 공개되었다. 최고 용량인 200mg 투여 군에서 9.9%의 체중감소량을 보였는데, 릴리의 올포글리프론이 6.4%, 로슈의 CT-996이 7.3%, 바이킹의 VK2735가 8.2% 감소하였으므로 efficacy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mg 투여군에서 빌리루빈 수치 관련 Grade 3의 이상 반응이 나왔고, 타사 파이프라인은 서양인 대상 Titration을 한 후의 체중감소율이라는 것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장기 투약 결과를 확인하여야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2상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준비 중이다.

도표 16. 하반기 주요 학회 (9월 주목할 학회는 음영 표시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관련기업*
9월	09월 06일	WCLC (세계폐암학회)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Barcelona, Spain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에스티큐브 등
	09월 15일	EASD (유럽당뇨병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	Vienna, Austria	한미약품, 디앤디파마텍 (Metsera) 등
10월	10월 17일	ESMO (유럽종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Berlin, Germany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지아이이노베이션 등
	10월 27일	PODD (약물전달체 파트너십 행사)	Partnership Opportunities In Drug Delivery	Boston, USA	펩트론, 인벤티지랩, 지투지바이오 등
11월	11월 03일	World ADC (세계ADC학회)	World ADC	San Diego, USA	인투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등
	11월 03일	BIO-Europe (유럽바이오파트너십)	BIO-Europe 2025	Vienna, Austria	인투셀, 셀비온 등
	11월 04일	Obesity Week (세계비만학회)	Obesity Week	Atlanta, USA	한미약품, 대웅제약, 디앤디파마텍, 동아ST 등
	11월 05일	SITC (면역항암학회)	Annual Meeting & Pre-Conference Programs	Maryland, USA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이노베이션, 지씨셀, 에이비온 등
	11월 06일	ACAAI (미국면역학회)	American College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Orlando, USA	셀트리온, 지아이이노베이션, 유한양행 등
	11월 07일	AASLD (미국간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Washington, DC, USA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 메드팩토, 동아ST, 등
12월	12월 01일	CTAD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San Diego, USA	아리바이오, 뉴라클 등
	12월 04일	AES (미국뇌전증학회연례회의)	American Epilepsy Society Annual Meeting	Atlanta, USA	SK바이오팜, 씨티씨바이오 등
	12월 06일	ASH (미국혈액학회)	ASH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Orlando, USA	Cstone(리가켄바이오/에이비엘바이오),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 등
	12월 09일	SABCS (샌안토니오 유방암회의)	San Antonio Breast Cancer Symposium	San Antonio, USA	-

주: 관련기업은 2024년 참가기업과 관련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을 고려하여 기재함. 밑줄은 2025년 참가가 확인된 기업임.

자료: 하나증권

도표 17. 국내 주요 제약사의 수출 비중, 주요 품목, 관련 지표(9/16 Biweekly 발간 후 변동 없음)

기업명	수출 비중	주요품목	관련 지표
SK바이오팜	100.0%	엑스코프리(US): 총 매출 80%	[Xcopri 미국 처방수와 월별 변동률] *자료: Bloomberg
삼성바이오로직스	97.1%	- 로직스: CDMO - 에피스: BS	[로직스 연간 수주 증감액과 시가총액] *자료: Dart, 하나증권 [에피스 파트너사 분기 매출 전망] *각 회사 매출의 Bread Down 알 수 없음. 다만 '24년부터 Sandoz를 파트너사로 도입. Oganon과 Biogen과는 '23년 이후 신규 파트너십 없음.
셀트리온	89.7%	집펜트라 매출액: 4Q24 280억, 1Q25 130억, 2Q25 230억	[집펜트라 TRx 수] * 자료: Bloomberg

녹십자	37.3%	- 주: 알리글로 - 부: 알부민 등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글로벌 수출 동향] * 자료: Trass (국내지역 : 충북 청주시/ 품목 :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 높은 중량과 높은 금액이 일치할 때 알리글로 향으로 해석
유한양행	19.8%	기술료 수익, 원료 등	[Rybrevant, Lazcluze 월 처방수 (좌,우: TRx)] * 해외사업부문의 매출은 유한화학 원료 생산 매출 및 그 원료의 수출 그 외 라이선스 수익
에스티팜	93.9%	제품(API) 매출 비중 : 수출 매출 90.9%	[분기별 누적 수주잔고 및 시가총액] * [분기별 누적 수주잔고 및 시가총액]
대웅제약	20.0%	- 나보타 수출액 : 총 수출 86% - Evolus 가이드스 : -14% 하향	[화성시(항남 나보타 공장 소재) 미국향 독신 수출 동향] * 국내 전체 미국향 독신 전체 수출량 중, 화성시 수출량이 매일 90% 전후반 유지 중 * 자료: Trass (품목: [3002491000] 독소, 독소이드(toxoid), 크립토크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국내지역 : 경기 화성 시/ 국가 : 미국)

주: 수출 비중은 2Q25 기준
자료: 각 그래프에 표시, 그 외 Dart,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5.09.30 기준)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Q24	2Q25	3Q25F	2024	2025F	2Q24	2Q25	3Q25F	2024	2025F
셀트리온	40,045	874.7	961.5	1,135.6	3,557.3	4,244.7	72.5	242.5	337.2	492.0	1,148.9
삼성바이오로직스 (TP: 1,450,000원)	70,960	1,156.9	1,289.9	1,551.1 (F. 1,535.8)	4,547.3	5,728.5 (F. 5,757.7)	434.5	475.6	497.2 (F. 626.6)	1,320.1	1,924.0 (F. 2,146.8)
유한양행	9,524	528.3	579.0	598.1	2,067.8	2,244.4	18.5	49.9	36.2	54.9	117.4
녹십자	1,510	417.4	500.3	498.5	1,679.9	1,836.1	17.7	27.4	32.8	32.1	71.0
한미약품 (TP: 400,000원)	4,702	378.1	361.3	397.6 (F. 402.9)	1,495.5	1,575.9 (F. 1,581.5)	58.1	60.4	59.9 (F. 71.5)	216.2	243.9 (F. 269.0)
대웅제약	1,553	360.5	405.5	381.2	1,422.7	1,507.1	42.3	57.9	43.7	147.9	186.3
HK이노엔	1,258	219.3	263.1	270.1	897.1	1,096.9	24.4	19.5	28.3	88.2	108.5
종근당	1,133	396.8	434.9	nr	1,586.4	1,755.0	35.8	23.6	nr	99.5	78.0
휴온스글로벌	580	209.7	212.7	nr	813.5	nr	30.4	25.3	nr	97.0	nr
동아에스티	426	172.4	194.0	187.7	697.9	716.6	-6.0	-5.8	12.4	-25.0	30.5
보령	748	255.6	251.5	nr	1,017.1	nr	20.1	25.4	nr	70.5	nr
SK바이오팜 (TP: 130,000원)	7,941	134.0	176.3	182.7 (F. 174.0)	547.6	702.3 (F. 668.2)	26.1	61.9	44.4 (F. 52.8)	96.3	171.8 (F. 180.1)
동국제약	847	203.5	233.5	224.0	812.2	915.6	19.2	22.1	23.0	80.4	95.0
에스티팜	1,852	44.6	68.3	65.0	273.8	329.0	-3.1	12.9	6.9	27.7	48.9
셀트리온제약	2,337	117.2	131.3	nr	477.8	nr	9.4	15.5	nr	37.2	nr
JW중외제약	495	172.3	191.1	200.1	719.4	791.6	11.6	25.0	26.1	82.5	95.0
일동제약	938	152.2	138.5	nr	614.9	nr	1.0	0.6	nr	13.1	nr
대원제약	294	138.0	143.9	172.7	598.2	677.9	-1.4	-1.4	11.6	28.2	42.0
제일약품	216	173.2	137.6	nr	704.5	nr	-15.0	4.7	nr	-18.9	nr
삼천당제약	5,055	54.9	56.9	nr	210.9	nr	2.1	-1.1	nr	2.6	nr
바이넥스	534	31.5	44.5	46.1	130.1	182.1	-8.3	1.0	1.8	-30.8	6.8

주1: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주3: 종목 선정: 2025년 6월 기준 자산총액 상위 10조 이상 +a(임의) 중 선정 (제외 종목: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

자료: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1,450,000원, 유지): 임시 주주총회 10월17일, 이후 10월30일 거래 정지 시작일

- 동사의 주가는 분할 결정 이후 정체된 상태인데, 의약품 관세 대한 불확실성 영향도 있지만 분할 이벤트도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 4.5년내 납품하는 1.8조 수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 분할 후 한꺼번에 주가 상승 요소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금감원 심사까지 통과하여 분할 재상장 일정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 임시 주주총회 10월17일에 분할이 결정되면 10월30일 거래 정지 시작일까지 매수세가 유입되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로직스는 관세 15% 수준인 경우 주가 등 영향 적을 것, 밀려있던 신규 수주 건 하반기에 계약할 것으로 전망. 재상장일 이후 6공장 증축, 미국 설비 투자 언급될 것. 에피스는 기업가치가 컨센서스 이하로서 현재의 주가 upside를 제한하는 요소이나,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신규 파이프라인 등 공개할 것.

알테오젠 (TP 550,000원, 유지): 키트루다SC의 FDA 승인으로 더 커진 L/O 기대감

- 분쟁 현황: 할로자임의 1차 특허 보정일엔 보정 없이 반박으로만 대응. 할로자임의 2차 특허 보정 기한이 2026/02/16로 재연장됨. 14개의 PCR은 예상대로 최초의 PCR과 같은 스토리로 흘러가는 중. 패밀리 특허이므로 결과는 동일할 것.
- 키트루다SC의 FDA 승인과 함께 유럽 CHMP 승인 권고도 획득하여, 2026년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로열티 수령이 가능함. 아울러 9월29일 한국투자증권원 코스피 이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내년 코스피로의 이전 계획이 더욱 뚜렷해 짐. 하반기 L/O는 여전히 1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은 더 많은 L/O가 기다리고 있음.
- ALT-B4 공급 안정화와 자체 개발 BS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 예정 (토지는 보유 상태로, 공장 건물 및 설비 투자로 2,500억원 계획).

리가캠바이오 (TP 150,000원, 유지): 하반기 L/O 체결 기대감 유요, 파트너사의 학회 발표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음

- 회사는 추가 L/O를 위해 ADC Bio Better 전략과 Target Exclusive Package Deal(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되, 타겟에 대한 독점 계약)로 파트너십을 시도하는 중. 하반기 기술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고, LCB14(KSUDA, HER2)와 LCB71(Cstone, ROR1)의 하반기 내 임상 데이터 공개가 신규 L/O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바이오텍은 학술 대회 전후로 R&D 성과가 공유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 10월 ESMO(ICS014), 12월 ASH(CS5001) 등 참석할 예정이니 타임라인 참고할 것. J&J에 L/O된 LCB84는 부작용 평가가 48개월이므로 2025.10.05 이후 P1 결과 공유될 것으로 판단되나, J&J의 R&D 현황 공유 이벤트나 중간 발표 가능성을 기대.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관심종목): Pfizer의 Metsera 인수, 경구제 임상1상 진행 중도 확인됨

- MASH 치료제는 궁극적으로 Fibrosis 개선을 보여줘야 하고, Top line 발표는 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다만 최근 FDA가 비침습적인 간경직도 측정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11월 AASLD 학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9월에 Pfizer가 Metsera를 인수하면서 시장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던 이벤트는 이미 발생함. 한편 Pfizer의 CVR에 경구제 파이프라인이 조건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Metsera는 예정대로 MET-097o의 임상1상 IND를 신청하여 이미 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12월 내 4주차 투여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9월 EASD에 Metsera는 1개월 제제로 개발 중인 MET-097i와 아말린 작용제 MET-233i를 집중 발표. 순서대로라면 11월 Obesity Week에는 경구제 파이프라인(MET-097o, MET-224o) 관련 데이터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

셀비온 (Not Rated, 관심종목): 11월 CSR 보고서 수령 후 조건부허가신청, 키트루다 병용 임상으로 2L로 시장 확대할 것

- 국내 임상2상 효능에서 플루빅토 대비 ORR 35%, PSA 50% 감소율, mPERCIST로 평가한 ORR 값 모두 여전히 기대할만한 수치를 보여줌. 부작용도 플루빅토와 비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저히 작으면서 키트루다 병용으로 적합한 면역세포 안전성을 보여줌. 11월 CSR 보고서 수령 후 조건부허가신청 할 것. 이 경우 26년 하반기 국내 출시 기대할 수 있음. (현재 플루빅토 국내환자 1회 투여 3천만원, 임상 기준 최대 6회 투여)
- 9월12일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 1상 IND 승인.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하반기 내 임상 승인 후 26년 상반기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 중간 결과 성과에 따른 Merck로의 기술이전도 기대.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mOS를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한미약품 (TP 400,000원, 유지): 비만 치료제 이벤트 시작, 환절기도 시작

- 한미약품은 별도 포함 각 자회사 모두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별도의 로수젯을 포함한 메인 파이프라인은 전분기 실적 수준은 유지하고 하반기 ETC 품목도 확대(프롤리아BS, 다파론 패밀리, 아모프렐 등)될 예정이고, 정밀화학도 CDMO 비중을 높여 이익이 개선되는 사업 구조 구축. 북경한미가 중국의 집중구매제도에 따른 실적 감소세가 컸으나, 하반기 자체 품목 개발과 집중구매제도 영향이 낮은 제품 도입을 시도하는 중으로 하반기 개선 기대.
- 하반기에는 HM15275, HM17321(근육 증가 파이프라인)의 각각 P2, P1 임상 진입 예정. 경구용 GLP-1 RA 저분자 화합물 파이프라인인 HM101460 (전임상) 추가로 파이프라인 다각화. 에페글레타이드(아시아인 맞춤형 비만치료제)의 임상 3상은 3Q25 내 종료로 예정대로 진행되어, 올해 내 탑라인 결과 발표, 27년 상용화 기대. 회사는 출시 첫 해인 2027년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세움. MSD에 기술이전한 MASH 치료제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P2 종료(결과는 1H26 발표 예상)도 대기 중으로 하반기 이벤트 물려있음.

SK바이오팜 (TP 130,000원, 유지): 편더멘탈 손상 없이 주가 하락, 2nd Product 도입 기대감도 유지

- 8월 처방 데이터가 MoM 약 -5% 감소하였으나, 9월에 다시 상승하는 경우 3Q도 QoQ 매출 상승을 전망할 수 있음. 중국, 일본으로의 확장, 동아ST의 한국부터 아시아 시장 진출 진행 중이므로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 매출도 기대할 수 있음.
- 세노바메이트 간독성과 관련한 코멘트: 뇌전증 치료제 중 발작 freedom과 부작용에 있어서 Biviact가 가장 우수함. 엑스코프리의 부작용은 Briviact에 비해 이미 높은 편으로 시장에 인지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량 증가 속도는 Briviact 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 이는 엑스코프리의 반응률(50% 이상 발작 가능성 감소하는 환자 비율)이 3세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성을 가짐.
- SK바이오팜의 밸류에이션은 2nd Product를 배제하면 Peer 대비 높은 편.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환율도 낮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술이전을 해오기 적절한 시점에 도래한 것으로 전망. 동사는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여 편더멘탈이 손상된 바 없으나 주가는 과도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 관세는 15% 선에서 마무리될 것, 약가 인하는 사실상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여, 대외 이슈 안정화시 주가는 TP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지아아이노베이션 (Not Rated, IPO 주관사 업데이트): 면역 타겟을 포함한 이중항체에 대한 관심도 증폭과 함께 재주목 받을 가능성 높음

- 하반기 GI 301 한국/일본 P2 IND 신청, 학술 대회 참석 (10월 ESMO) 예정. 이 때 빅파마들과의 기술이전 논의 하는 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간 수익률 감소폭이 과도한 경향. 학회 이벤트와 함께 데이터 업데이트만으로도 빠르게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
- 9월29일 면역항암제 'GI-102'가 FDA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받음. 지정된 부분은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함. 향후 우수한 임상 결과가 도출되면 임상2,3상에서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신청하여 조건부 조기 허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 현재 GI 102: SC제형 P1b, 키트루다 병용 P1/2(초기),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인트셀 (Not Rated, 관심종목): 에피스홀딩스 정정 신고서 상 “ADC이중항체” 개발 의지 확인

- 에피스홀딩스가 9/11 자회사의 사업 목적으로 “이중항체 ADC와 펩타이드”임을 밝히며 주가 상승. 10월17일 임시 주주총회일 전후로 에피스홀딩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임상까지 진입하게 될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으로써 인투셀의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ADC 업계는 페이로드의 내성과 약효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는 중. OHPAS 링커는 페이로드 중합(conjugation)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페이로드 작용기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이며, ADC 생산 수율이 낮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의 링커와 뚜렷한 차별점을 가짐. 11월24일에 분할하게 될 에피스홀딩스가 OPHAS 링커가 적용된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경우 동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걷어내고 주가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아울러 자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국내 임상1상 IND를 신청한 상태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니 주목할 가치가 높음.

펩트론 (Not Rated, 관심종목): 국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대장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 릴리와의 본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으나, 필요한 조건과 데이터 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 제2공장 착공을 위한 건축허가신고서는 9월10일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출시도 가까워지고 있으며 Teva는 리라글루타이드(삭센다)의 제네릭을 이미 출시하는 등 주1회 비만치료제 주사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월1회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이 필수가 되고 있는 분위기. 이에 따라 Scale-up/out 실현 가능성까지 평가한 상태인 펩트론과의 본계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아울러 하반기에 펩트론이 실제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 장기지속형 주사제형 개발사인 인벤티지랩과 지투지바이오도 각자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기대감이 실릴 수 있으니 참고.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4Q25-1Q26이벤트(2025.09.30 종가 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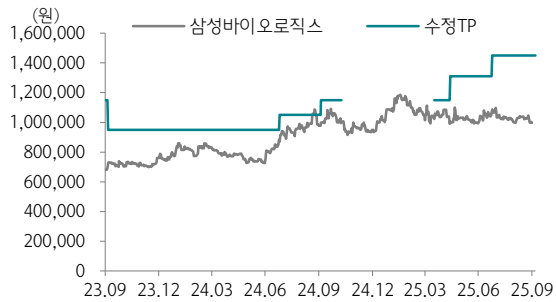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4Q25	1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450,000	997,000	45%	10/17 임시주총 10/30 거래정지 시작일 11/24 재상장	-	- 분할 재상장 후 미국 설비 투자 계획 발표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수주 공시, 에피스의 신약 파이프라인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 기대
리가캠바이오	150,000	140,500	7%	10월 ESMO 참가(ICSUDA) 12월 ASH 참가(Cstone) - J&J P1 종료, 옵션행사여부	- LCB14(ICSUDA) P1b 중간결과 발표 - LCB14(Fosun) 유방암 P3 완료, 조건부허가신청 - LCB74(NextCure) P1a 결과 발표 - J&J P1 종료, 옵션행사여부	- Bio Better, Package Deal의 경우 하반기 전체 모멘텀 보유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알테오젠	550,000	458,000	20%	1건 이상의 L/O 기대	'25년 보다 더 많은 수의 L/O 기대	- FDA승인과 올해의 특허 보장 이벤트는 종료 - 신규 파트너사 등장 예상
디앤디파마텍	NR	201,000	-	10월 Obesity Week (Metsera 참석 예상) 11월 AASLD (MASH) 참가 12월 Metsera 경구비만약 결과 공유(4주 투여)	MASH 파이프라인 DD01의 P2 Top line 발표	10월 Obesity Week의 경우 경구비만약 개발 주체는 Metsera이므로 직접 참가 및 데이터 발표하는 것을 기대 11월 AASLD는 디앤디파마텍이 자체 개발 중인 MASH 치료제의 데이터를 발표
한미약품	400,000	367,000	9%	10월 Obesity Week - 에페글레타이드 Top line 발표 12월 말 Efinopegdutide (MSD L/O) P2 종료	Efinopegdutide(MSD L/O) P2 Top line	- 하반기 비만치료제 이벤트 보유(삼중작용제, 근육 증가제, 저분자화합물경구제) 3Q, 4Q 실적 상승 전망
셀비온	NR	17,690	-	11월 최종보고서(CSR) 수령 → 조건부허가 신청 - 키트루다 병용 투약 시작	-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1H26 이후 예상)
SK바이오팜	130,000	101,400	28%	- 미국 엑스코프리 확장 임상에 따른 BLA 신청(추정) - 엑스코프리 한국 허가 획득 2nd Product 도입	-	- 금리인하 및 환율하락으로 2nd Product 도입에 대한 기대감 - 엑스코프리의 4Q까지 매출 꾸준한 상승세 전망
지아이이노베이션	NR	18,570	-	10월 ESMO 참가	-	- GI 102: SC제형 P1b, 키트루다 병용 P1/2(초기),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펩트론	NR	300,000	-	10월 PODD 참석	-	제2공장 착공을 위한 건축신고서 제출(25.09.10)
인벤티지랩	NR	46,450	-	10월 PODD 참석	-	- 제2회차 CB 대부분 전환되어 남은 물량은 약 4%로 대부분의 오버행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 - 단 10월 27일 PODD 학회 참석 및 LO 가능성으로 인한 주가 상승 모멘텀 보유
지투지바이오	NR	218,500	-	10월 PODD 참석	-	8월14일 상장했고, 락업 3개월 0.4%, 6개월 0%로 단기 오버행 완전 해소됨
인투셀	NR	37,600	-	11월 ADC 학회, BIO-Europe 참가 - ITC-6146RO 국내 P1 승인	ITC-6146RO 국내 P1 투약 시작	자체 파이프라인은 ITC-6146RO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및 관련 분쟁 이슈와 무관

주1: 지아이이노베이션은 IPO주관사 업데이트 종목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24	BUY	1,450,000		
25.5.13	BUY	1,310,000	-21.56%	-16.03%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150,000	-10.08%	3.04%
24.7.25	BUY	1,050,000	-7.83%	3.52%
23.10.5	BUY	950,000	-18.88%	-7.05%
23.9.30	1년 경과		-	-
22.9.30	BUY	1,150,000	-30.80%	-21.1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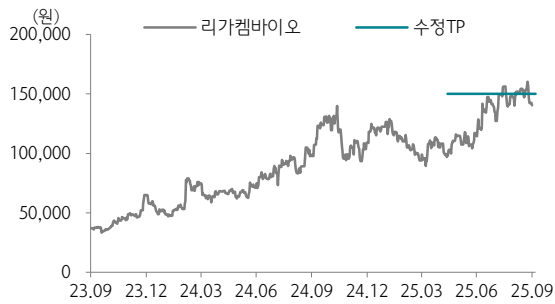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8	BUY	550,000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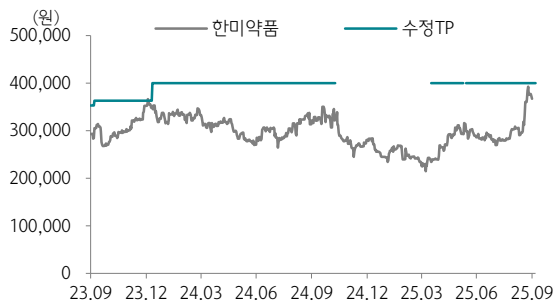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5.13	BUY	150,000		
22.12.28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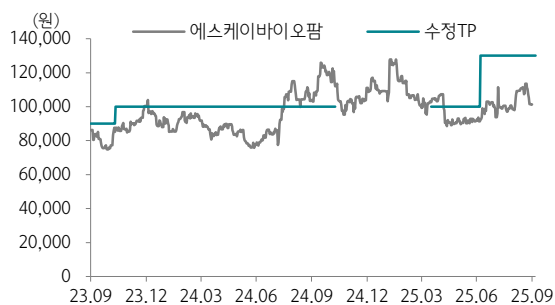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6.13	BUY	400,000		
25.6.9	Not Rated	-	-	-
25.5.9	BUY	400,000	-26.51%	-22.13%
25.4.16	담당자 변경		-	-
25.1.10	1년 경과		-	-
24.1.10	BUY	400,000	-23.18%	-11.75%
24.1.5	BUY	363,019	-4.14%	-4.00%
23.10.6	BUY	363,019	-16.21%	0.96%
23.4.6	BUY	353,207	-16.15%	-6.81%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7	BUY	130,000		
25.6.27	BUY	100,000	-7.70%	-6.30%
25.4.16	담당자 변경		-	-
24.11.10	1년 경과		-	-
23.11.10	BUY	100,000	-6.52%	25.90%
23.7.17	BUY	90,000	-6.00%	10.78%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87%	4.13%	0.00%	100%

* 기준일: 2025년 09월 27일